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OREA

# Nonoblesse

5

ABC CERTIFIED  
KOREA ALLIOT BUREAU OF  
CIRCULATIONS

GUCCI

www.gucci.com

# ‘레트로’, 시간의 유혹술

바야흐로 레트로의 시대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대중문화 전반에 강한 흔적을 남긴 레트로 열풍이 고급문화에도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우리는 시대를 끊임없이 거슬러 과거의 유산에 매료되는 것일까? 그 화두를 다시 질문할 때다.

에디터 김재석(jskim@noblesse.com) 사진 제공 갤러리EM, 국제갤러리, MoMA, 구겐하임 미술관, 옛나잇 필름

물론 ‘재조명의 시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트렌드와 높은 담을 쌓고 지낸 고급문화의 영역에서 레트로는 긍정의 화두다. 특히 ‘단색화 열풍’이 그렇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윤진섭 교수의 기획으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을 계

기로 단색화 재조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미시간 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조앤 기가 <한국의 동시대 미술: 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Contemporary Korean Art: 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이라는 저서를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 9월 비엔날레 시즌을 맞아 국제갤러리에서 윤진섭 교수가 기획한 <단색화의 예술>전이, 같은 시기 블룸 앤 포(Blum & Poe)의 LA 갤러리에서 조앤 기 교수의 기획으로 권영우·정상화·박서보·하종현·이우환·윤형근 등을 초청한 대형 단색화 전시 <다방면에



서: 추상에서의 단색화(From all Sides: Tansaekhwa on Abstraction))가 동시다발로 열리면서 그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파리 페로탱(Perrotin) 갤러리에서 박서보의 개인전이 열렸고, 오는 5월에는 뉴욕에서 그의 전시를 개최한다. PKM갤러리는 4월에 열린 재개관전의 주인공으로 윤형근을 택했다. 5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단색화 특별전이 열린다.

2 작년 9월 블룸 앤 포의 LA 갤러리에서 열린 단색화 전시 <다방면에서: 추상에서의 단색화> 전경

3 하종현, *Conjunction 09*, 삼베에 유채, 51x60cm, 2009\_ 국제갤러리의 아트 바젤 홍콩 출품작